

Know-Where와 Accessibility



유경희
한통엔지니어링 리더센터 상무

1. 머리말

한 사람의 정보수요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아침의 정보수요와 출근후의 정보수요가 다르며 저녁때에는 더욱 달라진다. 누구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는 할 것이고 조반은 먹을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뉴스로 볼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가 이 사람에게 가장 유효한지는 미처 파악은 커녕 그저 스쳐지나고 마는 정보가 대부분이다. 배고플때는 먹는것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옛부터 인간은 의식주에 관한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온것은 사실이다.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대체로 해결된 후에는 정보수요의 성향은 달라졌다.

학구열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지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상품이나 돈의 흐름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가정주부는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국가, 공공단체나 기업 또는 단체나 개인은 모두가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사장시키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을 흔히들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있다. 단순히 되찾아 내기 쉽도록 체계화시켜서 전산가독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생겼다. "데이터베이스"란 것이 유행되다시피 앞을 다투어서 서로 만들기는 했는데 이용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분명히 어디엔가 있기는 한데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못하고 있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표준화하지 않고 무작정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시스템에 모든 이용자에게 순조롭게 흘러갈수가 없다. 데이터 분배업자라고 할 수 있는 PC통신망은 모두가 서로의 왕국을 만들려는지 표준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의 시민이 되기를 요망한다. 2-3군데의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면 어느곳에 어떠한 쓸모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알수 있을턱이 없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통신기술의 표준화는 수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터인데 우리사

회는 아무래도 표준화를 위한 노력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2. 문제해결의 첩경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문제란 것은 해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철저히 해결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 Know-Why....이것은 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가라는 정보를 말한다.

나) Know-What...이것은 정보 그 자체(지식)을 말한다.

다) Know-How....이것은 어떻게 하면 목적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정보를 말한다.

라) Know-who....이것은 누구에게 가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정보를 말한다.

마) Know-when...언제쯤 필요한 정보가 생겨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바) Know-where..어디에 필요한 정보가 존재하느냐 하는 정보를 말한다.

즉 정보의 6하원칙이라고나 할가 그런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가 해마다 질서없이 마구 생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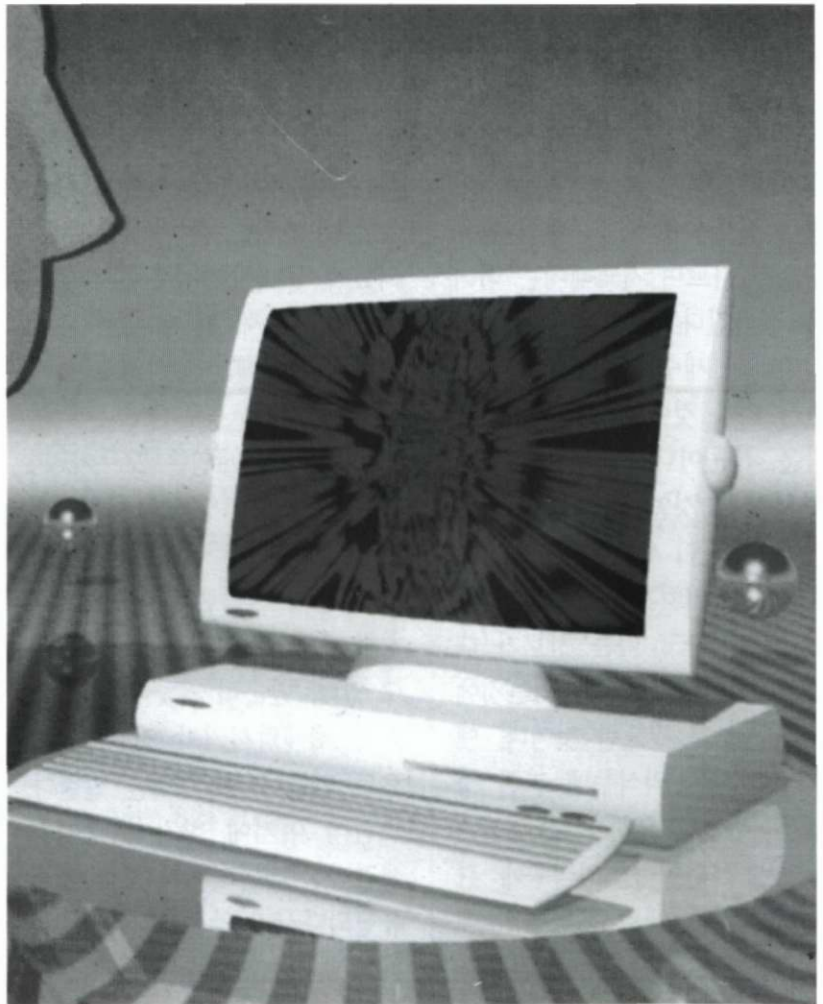
이러한 정보가 분명히 보물섬이기는 하지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를 몰라서 찾아 보지 못

하고 만다. 그렇다면 아무리 데이터베이스가 많고 훌륭하다고 하여도 이용자가 찾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다. 위의 여섯가지 종류의 정보 가운데서도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가장 필요하다.

즉 Know-Where이다.

3 Know-Where를 알아야 한다.

오늘날 온라인 인터랙티브 시스템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의 숫



자가 급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인 경우는 간혹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총본산으로 과장되게 표현되기도 한다. 충실한 인터넷 이용자라도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국내의 경우에도 하이텔, 천리안, 나우콤등 다수의 PC네트워크가 각각의 특징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게 탑재되어 있기도 하다. 부분적인 중복은 더욱더 많다. 어디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 무조건 들어가보고 찾아보는 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정보 이용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어느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유용하며 그것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루트를 경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Accessibility(접근성)의 확보

Know-Where를 파악한 다음, 접근방법을 알고 이에 접근해야 한다. 대다수는 필요 데이터베이스를 파악하여도 사용요금이 너무 비싸다던가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Know-Where를 파악해 두어야 하며 이들을 액세스 할 수 있

는 준비를 항상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Right Information to Right User at Right Time inRight Form(適報適者適時適式)이 이루어지며 적시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Know-Where를 파악하라. 그리고 적절한 Accessibility를 확보하라. 그러면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의 상당한 부분을 해소하여 줄 것이다.

5.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에 관해서...

가령, 화학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보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누구나 서슴없이 Chemical Abstracts를 거론할 것이다. 연간 50만건이 훨씬 넘는 화학정보를 전세계에서 수집하여 가공한 데이터베이스이다. 거의 모든 데이터분배업자들은 이것을 탑재하여 온라인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빈도가 가장 많다. 여기에서 독극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화학물질 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등이 파생되어 제작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데이터를 가공추가해서 화학구조식으로도 검색할 수 있거나 그래픽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다시 말하면 VAD(Value Added Data)인데 이것이 또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 가지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세계의 화학정보를 모두 커버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Chemical Abstracts에서 누락된 일본의 화학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 화학자들은 이에 불만을 품은지가 오래되었으며 이들이 스스로 미국의 CA에 대항하는 일본화학정보 데이터베이스(Chem-J)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즉 CA가 방대하지만 망라적이지 못하다는데서 그 약점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CA에서 누락된 일본화학정보가 필요한가 안필요한가만 따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화학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면에서 너무나 후진적이라서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우리의 체계있는 화학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6. 맺음

Know-Where도 파악하고 액세스성도 확보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누락되는 정보에 관한 소스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DC**